



"저런 걸 낳지 말고 호박이나 낳았더라면 국이나 끓여 먹지"

뜻: 사람이 너무 못나가거나 쓸모가 없을 때, 차라리 쓸모 있는 호박이라도 낳았으면 국이라도 끓여 먹었을 것이라며 심하게 핀잔하거나 비난하는 말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핀잔 · 후회 · 경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저 런 ↓ 걸 ↓ 낳 지 ↓ 말 고 ↓ 호 박 이 나
 낳 았 더 라 면 ↓ 국 이 나 ↓ 끓 음 여 ↓ 먹 지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저 런 ↓ 걸 ↓ 낳 지 ↓ 말 고 ↓ 호 박 이 나
 낳 았 더 라 면 ↓ 국 이 나 ↓ 끓 음 여 ↓ 먹 지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자르] [거] [나지] [모기] [호박이] [노르리] [고리] [꼬] [모지]

웹에서 보기

